



타이완 차 문화 탐사

세계시장 넘보는 타이완 차

- ① 타이완 차의 어제와 오늘
- ② 타이완 차문화에서 배우다

엄격한 품질관리로 '안전성' 확보



타이완 난토후 지역의 리산에 자리잡은 연합다원의 차 공장. 이곳은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인증과 식품위생안전인증(ISO 22000)을 받아 차 생산과정 전반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완 오토차는 연간 2,200만 대가 생산되는데, 10% 정도만 타이완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미국과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고품질의 차로 세계 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타이완 차문화를 살피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난토후(南投) 지역의 리산(梨山)이다. 최근 국내에도 적지 않은 양이 수입되고 있는 리산차는 고산지대에서 생산되는 차 특유의 향과 맛을 간직하고 있어 차인들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키고 있다.

해발 1700m에 자리 잡고 있는 대만연합

다업유한공사(台灣聯合茶業有限公司)의 '연합다원(聯合茶園)'은 리산 지역의 다원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며 차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다원(茶園)이다. 발효도 20% 전후의 경발효차를 주로 생산하는 이곳은 차 자체의 품질이 우수할 뿐 아니라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작업장 환경, 생산 전 과정 꼼꼼히 기록 국제규격 ISO에 따른 철저한 위생 관리 기술력 앞세운 차기업들 세계 석권 노력



차의 안전성 확보는 세계 차 시장 진출의 초석이다.



'자연지미 다업유한공사'는 2006년까지 아시아 차 시장을 개척·석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차계 역시 타이완의 공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다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곳곳에 붙어 있는 위생 기준표와 안내 문구다. 시간 마다 실내 온도와 습도, 청결도 등을 체크하고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다원에서 채취한 찻잎이 다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완제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전 과정은 꼼꼼히 일지로 기록된다. 찻잎을 딛 다원의 이름과 무게 뿐 아니라 햇빛이나 실내에서 날아 떨어지는 과징인 위조와 찻잎 속의 효소 작용을 막는 살청, 찻잎에 생채기를 내는 유년 등의 각 과정 틈틈이 찻잎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그날의 기록과 통계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또 하나, 연합다원 다장을 관람하려는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관문이 있으니 바로 위생 모와 마스크 착용이다. 이는 식품위생안전

점관리기준인 해썬(HACCP) 인증에 따른 것으로, 연합다원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규격인 ISO 9001:2000 관리 체계 인증을 받는 한편, 해썬(HACCP) 인증까지 받아 해외 시장 진출의 초석을 쌓았다. 특히 '안전성(safety)'을 우선으로 하는 유럽과 일본의 차 시장을 겨냥해 농약 잔류물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26개 나라에서는 1000만 타이완 달러의 생산의 무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ISO 9001은 조직의 품질경영시스템 요구 사항을 표준화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된 것으로, 기업의 품질시스템구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해썬(HACCP)은 위해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이라는 단어의 머리글자로, '식품위생안전인증기준'으로 번역할 수 있다. 즉, 해썬(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찾아내고, 중요관리점을 결정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인 것이다.

이처럼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기업 경영 전략을 취하고 있는 대만연합다업유한공사는 1996년 설립된 이래, 2002년 전 세계 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증자를 하고 '자연지미 다업유한공사(Natural Flavor Tea Co., Ltd)'라는 자회사를 발족하기도 했다. '자연지미'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에 지점을 개설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아시아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장 확대를 발판으로 2015년에는 상장회사로 키워 세계 차 시장을 석권한다는 거대한 목표도 가지고 있다.

'자연지미' 대표이자 대만상다상업동업회(台灣省茶商業同業公會聯合會) 이사장인 여지강 대표는 '타이완은 비록 국토는 작지만 차 기술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엄격한 생산관리와 제다·

품평 기술 발전, 기술공유를 통해 타이완 차를 세계 제1의 차로 키워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연지미뿐 아니라 타이완 내에 60여개 점포망을 갖추고 있는 다상(茶商)인 천인·천복그룹 등도 아시아 시장을 넘어 세계 차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타이완 차의 발전이 그야말로 괄목상대할만하다. 내년에는 세계적인 차 행사인 국제차업품평대회가 타이완에서 개최될 예정이기도 해 타이완 차문화가 세계 차 시장에 이름을 알리는 또 한 번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타이완=여수영 기자

중 예위칭찬 '공부차' 펴내

오토차 종류, 바른 포차법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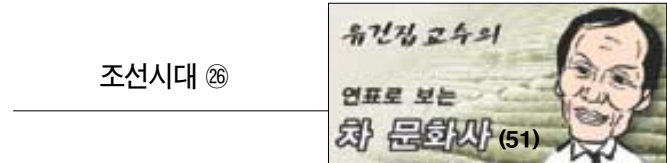


우리가 흔히 '오토차(烏龍茶)' '우롱차'로 부르는 것은 반 발효차를 일컫는 말로, 중국 푸젠성(福建省)과 광둥성(廣東省) 그리고 타이완에서 주로 생산된다. 이러한 오토차를 즐기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양이 요구된다하여 이를 '공부차(工夫茶)'라 부르기도 한다.

<다서집성> <보이차심원> 등의 책을 펴내며 차문화 전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예위칭찬이 최선 선보인 <공부차>한숨미디어에 펴는 오토차의 정의와 각 지역별로 생산되는 유명한 오토차의 종류와 특징, 올바른 포차법(泡茶法) 등을 소개하는 책이다.

특히 지은이는 '공부차'의 표기법이 '工夫'인지 '功夫'인지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는데, <관화휘해편람>과 <속다경> <접계외사> 등의 고전을 예로 들며 '工夫'가 맞는 표기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부차의 기원에 대해서는 북송(北宋)설과 청나라 함풍(咸豐)년간 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출발지가 푸젠 지역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중국 차문화의 기원과 전개 등을 두루 살피고 있어 차문화 전반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값 1만3천원



개화기 맞으며 파티 형태의 다화회 생겨 정부, 차 장려책으로 <농정신편> 배포

우리 차의 전통은 사철과 궁중의 다례(茶禮)에서 계속되었다. 그러나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외국의 문물과 함께 다속(茶俗)이 소개됐다. 우리의 전통적인 다종(茶風)에는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계획적으로 여럿이 모이는 일은 흔치 않았는데, 새로 생긴 다화회(茶話會)는 사람 수도 많을 뿐 아니라 간단한 파티 형태의 모임이었다. 다화회는 일종의 당대 문화의 절단 유행이었다. 정부에서는 차 장려책으로 1885년 <농정신편>을 배포하기도 했다.

중국은 차에 관한 서적도 계속 출간됐고 차산업의 근대화에 대한 열의가 짙게 보인다. 일본의 차는 퇴조하는 가운데 기세가 도입되었고 차에 관한 홍보도 진행된다.

① 안중수(安宗洙)가 쓴 농서로 차에 관한 기술이 많이 실려 있다. 청(淸)나라 호병추의 <다무재제(茶務叢裁)>를 옮겨 적은 것이다.

② 각부 대신들이 용산 인쇄국에서 다화회를 열었다.

③ 여주 여흥학교(驪興學校) 개교식에서 다례를 거행했다.

④ 차 마시는 예가 나온다.

⑤ 내각과 중추원 고문들이 4월 24일 처음 합동 다화회를 민병석의 집에서 열었다. 1909년에는 이준용이 용산 이지용의 강정(江亭)에서 다화회를 가지는 등 상류사회에 다화회가 유행했다.

⑥ 살영액이 쓴 책으로 우리 백산차(白山茶)를 소개했다. 청의 건륭 황제는 백산차를 공물로 요구하기도 했다.

⑦ 하운생: 무원차에 관한 자세한 분류와 그에 따른 세금의 부과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다.

⑧ 중국 역대의 중요한 다서를 한해서 간행한 책.

⑨ <다설>을 찬술해 자기 세계를 구현했다.

⑩ <무군농산고략(撫郡農產考略)>에서 차종, 지리 등에 관해 썼다.

⑪ 서세창(1855~1939): 차를 좋아해 다시를 많이 남겼다. 시세결(1858~1923): 대만의 차인으로 최초로 '공부차(工夫茶)'를 즐긴 사람이다.

⑫ 강창각삼(岡倉覺三)이 미국에서 쓴 차에 관한 책으로 차의 정신에 대해 피력했다. ■성균관대 예절지도학

- ① 김범부(1897~1966): 불교철학에 심취한 차인으로 시를 잘 지었다.
- ② 최익현(1833~1906): 상소 중에 외국에서 들어온 차나 과일용 왕이 들지 않도록 하는 대목이 있다.
- ③ <해동죽지>에 최영년의 글에 장성의 죽로차가 맛과 향이 좋다는 기록이 있다.
- ④ 경운당에서 열린 명현대후 망팔(望八) 행사를 기록한 진연의(眞演義)가 있다. 또 이 해부터 내의원에서 관장하던 차를 태의원으로 옮겼다.
- ⑤ 장지연이 정약용의 <강역고>를 중보(增補)한 책이다.
- ⑥ 차를 파는 집이 더러 있어서 외국인들이 사서 마셨다. 독일인 분취 박사는 당시 차값을 6전이라 했다.

※ 표는 약(Abbout)

한국	중국	일본
1897 김범부(金凡父)의 출성 ①	1895 <길림외기(吉林外記)> ⑩	1897 유년기 발명
1898 최익현(崔益鉉)의 상소 ②	1896 하운생(何潤生)의 활동 ⑧	
@ <해동죽지(海東竹枝)> ③	1897 <서합(書合)> ④	
1900 별다례(別茶禮)-경효전(景孝殿)	@ <다설(茶說)> ⑤	
1901 진연의(眞演義) ④	1903 허강덕(何剛德) ⑥	
1903 <대한강역고(大韓疆域考)> ⑤	1905 수외인물들이 인도와 국	
@ <차집> ⑦	내 차산지 시찰	
1905 <농정신편(農政新編)> 배포 ①	@ 서세창(徐世昌) 시사결(施士潔) ⑪	
1906 다화회를 열다 ⑧		
다례 거행 ⑨		
<구례철의각기(求禮七義閣記)> ⑩		
1908 다화회 ⑪		
@ 다화회 성행		

예의 주문 신형 문의
 전화 : 02)722-7777 / 팩스 : 02)722-7845
 서울시 영등포구 신문로 2가 137번지
 월간 다도 편집부

※ 정기구독자들에게는 할인해 드립니다.

茶와 禪의 깊은 인연을 극명하게 표현한

차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상권 10,000원, 하권 13,000원
 월간 '다도', 정기 구독자에게는 상·하권 20,000원에 드립니다.

발간

드디어 발간되어 판매 중입니다.

차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상권)

차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하권)

탑

크기 | 30.5cm x 30.5cm
 특징 | 13매 특수고급제본
 값 3,500원

사진·하지권

2006 CALENDAR
 불기 2550년 | 달기 4339년 | 丙戌年

부수 100~500부 501~1000부 1000부이상
 달력년 1,800원 1,700원 1,600원
 탑 1,600원 1,500원 1,400원

주문대상 : 개인, 각 사찰 또는 단체
 주문처 : 불광문화사업부
 대표전화 : 02)420-3200
 팩스전화 : 02)420-3400

다량 주문은 다음과 같은 할인혜택과 함께 달력 하단에 사찰 및 단체의 홍보 문구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색

사진·이경

크기 | 30.5cm x 22cm
 특징 | 13매 특수고급제본
 값 3,000원